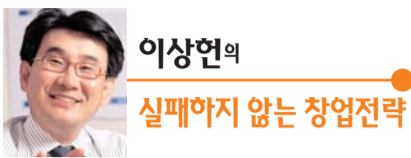


창업 자금운영 계획



이상현의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창업의 3요소 중 하나인 자금, 자금을 조달해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정부기관의 정책자금부터 신용, 보증, 담보를 이용한 대출, 청년 또는 여성가장 지원 자금 등을 활용하여 창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하지만 창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즉 창업자금, 신용도, 매장 입지 등 수치로 판단 가능한 부분부터 창업자의 성격, 가정환경, 보유한 기술 등 수치로 판단 불가능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쉽게든 어렵게든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창업에 도전했다고 하더라도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두어야 한다.

창업에 따른 소요자금은 크게 점포, 시설비, 기타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금을 5 : 4 : 1 법칙에 입각해 산출해야 한다. 쉽게 풀이하자면 점포임대비용으로 50%, 시설비용으로 40%, 기타 운영비로 10%가 소요될 수 있는 비율로 창업자금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물론 아이템 특성에 따라 점포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시설비 비중이 높은 아이템도 있다. 예를 들어 총 투자비용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점포 구입비용이 높은 1층 10평 규모의 점포를 얻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면 시설 투자비용이 4000만원이 소요되는 아이템 중 상품의 원가나 소요 경비 등을 산출하여 수익성이 보장되는 업종을 점목시켜야 한다.

반대로 점포비용이 낮은 3000만원에

점포를 얻을 수 있는 상권이라면 시설 투자비용에 중점을 두어 5000만원으로 점포의 규모나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상품의 원가 소요경비 등을 산출해 수익성이 보장되는 업종을 점목시켜야 한다. 그러나 막상 일을 진행하다보면 이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지만 창업자금 계획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창업 이전에 단계별로 자금활용계획을 세우려면 5 : 4 : 1의 법칙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

장사의 성공 여부는 점포의 목에 따라 좌우될 수 있지만, 점포 구입비용이 60~70%를 차지한다면 투자자치나 점포 운영 수익으로 그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70% 이상 가져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차입자금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위기대처 능력이 급격히 악화됨을 명심하자.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건설정책 박사)



현대차 노사, 지역아동 희망나눔 지원기금 전달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역아동 희망나눔 사업' 지원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현대차 김창환 울산총무실장, 강정구 노조 사회연대실장, 배익철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



한화큐셀, 인터솔라 유럽 2018 참여
한화큐셀은 '인터솔라 유럽2018'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터솔라 유럽2018은 5만여 명이 방문하는 유럽 내 최대 태양광 전시회다. 세계 4대 태양광 전시회로 꼽힌다.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이번 전시회 참가업체 중 최대 규모의 부스를 꾸린다. 고효율 모듈부터 상업·주택용 솔루션까지 폭 넓은 태양광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화큐셀

이젠 경제다



기자 수첩
김승호
(산업부)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된 때가 없었다. 가게 열고 처음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휴대폰 가게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한 지인이 최근 전화 통화에서 한 녀드러다.

20년 가까이 장사를 했지만 최근같이 돈 벌기가 힘에 부쳤던 적이 없었다는 게 전화기 너머 들려온 지인의 목소리였다. 경제가 심상치않다. 최근 나온 고용지표가 우선 이를 잘 설명해준다.

취업자 증가 폭은 최근 6달 연속 20만 명대를 밑돌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0.5%를 기록한 5월

청년실업률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와 한창 일 할 나이인 15~29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평균 실업률의 두배가 훌쩍 넘는 청년실업을 악화는 개선될 기미 없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현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질 않고 부정적 파급효과만 더욱 도드라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을 많이 받아 살림이 편하다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주니 못살겠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인은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평가절하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내수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대기업은 글로벌화라는 명분으로 모두 외국으로 나간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외국기업·국내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표가 나질 않고 있다. 들어온 기업은 매력을 느끼지 못해 추가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아예 문을 닫고 짐을 싸는 분위기다.

외국기업 유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 청사진만 가득한 드넓은 새만금과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는 시화호는 낚시꾼들로 넘쳐난다. 고용 창출, 투자 유치, 가계 자산 형성, 소득분배 등은 온데 간데 없이 국내 경제가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경써야 할 것은 바로 경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NH농협은행, 자매결연 마을서 일손돕기 봉사
NH농협은행은 18일 허충회 부행장과 리스크관리부 임직원 20여명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가시리마을에서 포도봉지씨우유 등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일손돕기에는 이 지역의 남양농협 임직원들도 함께해 농협 인직원 간 교류의 한마당이 되기도 했다. /NH농협은행



신세계면세점, 블루밍 캠페인 수익금 3천만원 기부
신세계면세점이 지난 15일 회원동 본사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한 '블루밍(BLUEming) 캠페인'을 통해 구성된 기부금 3000만원을 사회적기업 오티스타(AUTISTAR)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블루밍 캠페인'은 신세계면세점이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 캠페인이다.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왼쪽), 이완기 오티스타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동아씨오홀딩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MOU
동아씨오홀딩스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 및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은 한국 내 베트남 문화 홍보, 동아씨오홀딩스의 사업회사 및 판매 제품의 베트남 현지 투자와 진출 기회, 기타 상호 관심 분야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동아씨오홀딩스

- 인사**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 이부영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이원돈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추철규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장 이하준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산업과장 임영아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 △북한연구실장 김길기 ◇팀장 △기획팀장 김현희 △운영지원팀장 박승일 △전산팀장 남상희
 - ◆서울주택도시공사 △ 미래전략실장 윤진호 △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 신재준
 - ◆충북도 ◇5급 전보 △ 감사관실 음창규 △

- 청년정책담당관실 전영미 △ 자치연수원 권혁미 △ 환경정책과 임근목 △ 청남대관리사업소 시설과장 김성기 △ 식의약안전과 지용석 △ 치수방재과 이종기 △ 바이오정책과 김홍식 △ 수질관리과 이기영 △ 재난관리과 김관수 △ 소방종합상황실 이상윤 ◇5급 승진 △ 여성정책관실 안용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 이상일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파견 김민희 △ 세정과 이순희 △ 일자리기업과 김영옥 △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 파견 임세중 △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 파 오기택 △ 교통정책과 임영택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광복근 △ 산단개발지원과 정훈 △ 충북도립대학 최상화 △ 복지정책과 신영희 △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장 이충희 △ 북부출장소 산업자원과장 광용관 △ 보건정책과 광경희 △ 화학물질안전원 파견 안세연 △ 기후대기와 정철기 △ 기후대기와 임태태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정진훈 △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장 김봉수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허혁**
- ◆충북 옥천군 ◇5급 전보 △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 ◆이투데이 △ 자본시장부장 이채용 △ 온라인뉴스부장 한지은

- 부음**
- ▲ 박철용씨 별세, 정은영(HSBC 한국대표)씨 장인상 = 17일 오후 7시,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특1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30분. 02-2227-7500.
 - ▲ 한계인 씨 별세, 김강자(전 경찰서장)·김영자·김미숙·김민태 씨 모친상, 김한국·송금산·김권필(동강대학교 부총장) 씨 장모상 = 18일 오전, 광주 스키장레식장 101호, 발인 20일 오전 8시. 062-951-1004.
 - ▲ 정영수씨 별세, 정석용(전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연구원)·석태(부산대 연구교수)·석교(기업은행 서여의도지점 부지점장)·석춘(KCA 이사)씨 부친상, 손수호(인덕대 교수)씨 장인상, 정대연(경향신문 사회부 기자)씨 조부상 =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일 오전 10시. 02-2227-7556.
 - ▲ 최종용씨 별세, 최성환·경환(뉴스1 경제부장)씨 부친상, 홍선미(수원 매회중 교사)씨 시부상, 조영식(영화기계 대표)·유석주(대우전자 그룹장)·김창선(대전도시철도공사 대리)씨 빙부상 = 18일 광주광역시 만평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062-611-000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206
	2002년5월28일 제39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46호